

「후쿠시마와 연대하는 여리고·행진」

한국·일본·대만 후쿠시마 투어의 안내

10월 5·6일, 한국에서 NCCK, 대만에서 PCT의 WCC 관계자가 센다이(仙台)에 오셔서, 표제의 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WCC 부산대회를 향한 동북 헬프의 업무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그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5일 저녁때에 행하여지는 간담회는,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으므로, 만약 참가하실 때는 가와가미 나오야에게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세계 교회 협의회 부산대회에 있어서, 핵의 문제를 전세계의 교회가 특별한 문제로 올리기 위해서, 일본·한국·대만에서 통일된 행동을 취한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회의를 거듭해 왔다.

이번 투어로, 후쿠시마의 피폭지를 배우고, 그 준비를 마무리 한다.

참가자:

일본(동북이외)로부터 5명, 한국에서 3명, 대만에서 2명

조직:

센다이 실행 위원회 (동북 헬프 가와가미 나오야, 이 정임, 코리아 문고 아오야기 준이치)

일정:

10월 5일(토)

오후 6시부터, 아오바소 교회 (센다이시(仙台市) 니시키초(錦町)1-13-48)에서, 가호쿠(河北) 신문의 기자와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후, 센다이시내 수도원에서 취침.

10 월 6 일(일)

오전 8 시, 후쿠시마시내에 있는 교회로, 수도원을 출발.

오전 10 시, 후쿠시마 샘 루터 교회에 도착(우편번호 960-8055 후쿠시마시 노다초(野田町)1-2-10. TEL / FAX :024-534-8503.) 일요일 예배에 참가. 예배후, 간단히 교회 성도들과 간담.

오후 1 시, 교회를 출발.

오후 3 시, 미나미소마시 고다카(小高)지구에 도착.
사고가난후에 사람이 없어진 도시와, 쓰나미 피해 지역을 시찰.

오후 5 시, 소우마시(相馬市)내의 가설 주택을 방문하고, 고다카(小高)지구에 살고 있었던 피난민과의 면담.

오후 6 시반, 소우마시(相馬市)내에서 저녁 식사.

오후 9 시, 센다이(仙台)도착

이상입니다. WCC 를 위한 귀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동북 헬프

가와카미(川上) 나오야(直哉)